

⊗ 중기청, 벤처투자재원 500억원 조성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창업투자조합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창투조합에 출자하는 재정자금은 펀드 결성액의 30~50%인 200억원으로 이러한 지원을 통해 500억원의 벤처 투자재원이 마련된다.

하반기 창투조합 출자계획은 민간펀드 조성의 어려움을 감안, 정부 출자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50%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 투자 취약층에 대한 전문펀드 육성을 위해 일반 조합보다 출자 한도를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한다.

또한 기금출자조합의 최소규모를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 조정해 민간자금 조달이 쉽도록 한 것이 주요특징이다.

기금출자는 투자실적 및 투명성 등의 평가를 통해 이뤄지며 지난 1년간 투자실적이 없는 등 투자실적이 미비하거나 창업지원법령 등의 위반이 있는 창투사는 출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투자자산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투자여력이 없거나 부실한 펀드운용이 예상되는 창투사 등도 자금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오는 9월 20일까지 출자신청을 접수, 9월 30일까지 출자대상 및 출자비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통부, 'IT M&A펀드' 1200억원 규모 조성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IT(정보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1200억원 규모의 'IT M&A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M&A펀드 운영사로 KTB네트워크와 스틱IT투자가 선정됐다.

IT M&A펀드는 정통부가 모두 600억원을 출자하고 2개 벤처 캐피탈이 올 10월까지 각각 300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민간과 해외로부터 조달해 모두 1200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IT M&A펀드가 결성되면 독립적으로는 생존하기 어렵거나, 다른 분야와 합칠 경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소 벤처 기업들을 발굴해 M&A를 추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IT펀드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 등을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에 3조 5000억원 투입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정부 예산 1조7000억원 포함)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장관 윤진식)는 지난달 2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확정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후속조치를 마련, 2일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산자부장관을 단장으로 경제단체장, 산업별 협회 및 연구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하에 산업별로 업계중심의 사업단과 세부품목별 워킹그룹(WG)을 운영키로 했다.

예산지원은 10대 산업별 5개 세부과제에 대해 최소 100억원 이상 신규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939억원, 내년 2000억원, 2005년 3000억원, 2006년 3500억원, 2007년 4000억원, 2008년 5000억원 등 모두 3조5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우선 9월부터 산업별 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국제기술 협력, 제도개선 등 5개 분야 세부사업별로 연구기획 및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투자 우선순위도 정할 방침이다.